

우리 모임에선

반아라이온스 경로식당 헌판



서울반아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은 3월 24일 시설비 2천만원...

대구교사불자회 창립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손기완, 대구능인교 교감)는 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해인사 순례

서울시청불심회(회장 제타홍)는 3월 28, 29일 합천 해인사에서 성지순례...

부산운불 무사고기원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16일 해동공공수입구 교통안전...

'강남포교' 이끌 새 신행단체 탄생

서초구 공무원 불교연합회 내달 2일 창립
서초구청 대법원등 7개기관 1천불자 결집

지자체시대 '우리 고향 불국토'를 염원하는 서초구 1천여명의 공무원...

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지역내 불자화합을 통한 불교포교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을 고양하자'는 창립 취지와 앞으로 활동방향을 확정했다.

족과 함께 서초사암연합회, 각 사찰 신도회 및 각 단체 불교신도회, 서초공무원불자연합회등과 연합하여 서초불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한뒤 지역포교와 불교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IMF 빨리 벗어나게 정진합시다"

경북도 경의회·정각회 합동기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이 IMF극복을 위한 합동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갖는 정기합동법회의 일환이기는 하나 IMF를 맞아 위축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의미가 컸다는 여론이다.

도원님(조계종 원로의원)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려 한다면 조만간 국가의 경제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정각회·경의회가 연 2회

법회에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타스님,



경북도 정각회와 경의회는 24일 IMF 조기극복을 기원하는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대구=이은호 기자



직지사 운불회가 26일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직지사 운전불자회 탄생

경북 김천의 범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직지사 운전자불자회가 창립됐다.

직지사운불회는 3월26일 직지사 설립전에서 6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달리는 법당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직지사 운불회의 초대회장에 양찬달 신홍택시노조위원장(관련인터뷰 4면)이, 부회장은 이상철 황악택시노조위원장과 지창수 개인택시운전자가, 총무와 재무에는 박세익 힐택시노조위원장과 김기흥 김천택시노조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전법도량 목포불교대학 헌판식

조계종 전법거점도량인 목포불교대학(학장 보선스님, 대문사 부주지) 헌판식 및 개교식이 3월24일 거행됐다.



불교대구교육원 창립 10돌

불교대구교육원(원장 윤성스님)은 3월 25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무공스님(동화사주지) 법타스님(대구불교방송 이사장) 원명스님(대구사원련 회장) 최동원 대구광역시신도회장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진관스님 출소 환영법회 봉행

진관스님 출소 환영법회가 3월25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원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종회회장)스님 총사와 KNCC 김동완 목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중석 신부, 김근래 장영달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회의원, 실천승가회, 석림회, 전불련, 민가협, 나눔의집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상주범우회 비로자나불 공양법회

대한불교상주범우회(회장 김중하)는 3월22일 경북 상주시 서성동 소재 왕산에서 보물 제119호로 지정된 비로자나부처님 불 공양법회를 봉행했다.

법조인불자회

'파사현정' 구현하는 사람들



법조인 불자회원들이 강화도 보문사를 사찰탐방하여 대웅전 벽화를 보며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

변호사 100명 30년 역사
교계 법률자문역 단골
노인복지시설 정기위원

21일 아침 8시 서초동 대법원앞. 법조인불자회(회장 김홍근, 변호사) 회원 30여명이 강화도 보문사 사찰순례법회 참가를 위해 모여 원로법조인들에게 합장인사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한다.

지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후에는 보문사 유래를 듣고 유적을 둘러보는 법조인들의 모습은 불교의 요묘한 이치를 깨닫는듯 하다.

법조인불자회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목표로 1969년 창립하여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용태영 변호사(前 회장)를 중심으로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을 제기 7년 부처님오신날을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대성과를 거두는 등 교계에 큰 역할을 했다.

김홍근=김원우 기자

공 고

1997년 12월 10일자 현대불교 신문 광고란에 홍재규(학암)명의로 게재된 광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998년 3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이대산(혜봉)

사과문

이대산 종정예하

소송이 1997년 9월 24일부터 1997년 12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이대산 종정스님을 비방·모독하는 내용의 서신(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소속 각 종단 종정스님들께도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낸 바 있으며 현대불교신문(1997년 12월 10일자)에도 고법판결문과 함께 내용증명 일부를 게재하여 이대산 종정스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중 "각하한다"는 문안을 "기각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잘못알고 소송 취지승소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며

은 소송 측 증회에서 불신임안이 처리되기 이전에 종정으로서 적법한 종정권한 행사였습니다.

3)내용증명에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 한 것은 소송의 수행과 덕화의 부족이었음을 시인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비방·모독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송의 행위로 인하여 이대산 종정스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단과 종도를 나아가 불교계에 크게 실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리며 차후로는 이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1998년 3월 일

경기도 이천시 용면 원포리 800
임오사 초심 법암(학암) 재규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연암 우영봉

법주사 강원 학인모집 공고

98학년도 법주사강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98학년도 증설 과목 및 외래강사

- 1. 내 전 - 화엄경현담(대교과)
2. 교 양 - 중국불교사·초급한문·중급한문·전산기초
3. 특 강 - 비교종교학·중국선종사
4. 외래강사 - 덕민스님(전 쌍계사 강주)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지명스님(청계사주지)

다 음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반) 00명
사집편입 00명
입학자격 : 조계종 승려로써 결계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 사집과 편입의 경우 사미과 수료자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
은사님 추천서
주민등록 초본
증명사진 5매
접수기간 : 2542년 4월 1일~4월 14일
전형일시 : 2542년 4월15일 오후 1시
장 소 : 강원 큰방
준 비 물 : 기사·장삼·발우·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
문 의 처 : 법주사
(0433)43-6783
(0433)43-4858, 3615

불기 2542년 3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강원
주지 혜 광 · 강주 혜 남